

전북, '피지컬AI 실증' 국가 거점 도약

피지컬AI' 예타 면제 의결 5년간 1조 규모 국책사업 추진 현대차·네이버·SK 등 협력 제조산업 고도화·혁신거점육성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비상한다.

국무회의에서 피지컬AI 실증·연구 기반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의결, 전북은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해 글로벌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사업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등을 거쳐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된다.

피지컬AI는 기존의 디지털 기반 AI를 넘어, 현실 세계의 차량·로봇·공장 등 물리적 시스템을 제어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단순한 소프트웨어 AI를 넘어 제조업, 물류,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과 공공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 CEO 젠슨 황은 2025 CES 기조연설에서 "피지컬AI는 인류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는 차세대 기술"이라며 피지컬AI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산업별 특화 솔루션 개발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자동차, 농기계 제조업 등 국내 주력 산업군에 특화된 AI모델과 시뮬레이션, 제어 기술 등을 확보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집약한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리벨리온, KAIST, 성균관대, 전북대 등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국내 최초 피지컬AI 테스트베드 및 융합 실증 기반을 조성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조산업

을 고도화하고, 피지컬AI 기술을 전략 산업과 융합해 전북을 기술·산업·도시 전반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도입, 피지컬AI 전담조직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개정 등을 통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율권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2025년 올지연습' 실전과 같은 훈련

도는 20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5년 올지연습 실제훈련을 폭발물 테러·화재 발생 복합위기 상황예민·관·군·경이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남원시>

전주 AI신뢰성센터 '청신호' 기재부 본예산 확보

2026년 본예산 10억 반영 5년간 총사업비 480억 투입 '1조' 피지컬AI 실증사업 연계 정동영 "전주 AI혁신 관문 될 것"



정동영 의원

선다면 ▲ AI서비스 및 제품 보유 기업 대상의 신뢰성 향상 지원 ▲ AI 활용 아이디어 보유 기업 대상 지원 ▲ AI신뢰성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전주시 덕진구에 들어설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허브센터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2026년 본예산 중 실시·설계 및 추진 기예산으로 10억원이 최종 반영돼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전하면서 "이번 반영으로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하게 됐으며, 5년간 총 480억원 (국비 300억·지방비 180억)의 투자가 현실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AI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에 전국 6개 지역이 지원했지만 전주시만 최종 통과해 전주시의 유일한 과제가 됐다.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TTA가 주관하는 전주시 첨단벤처단지 480억 규모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이미 과기부 공모사업 통과 당시부터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 바 있고, 정 의원은 국회 과방위 예산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바 있다. 마침내 이번 기재부 협의가 조율돼 26년도 정부안에 해당 사업이 최종 반영되며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AI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구축·운영'을 기반으로 책정된 이번 사업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AI, Trustworthy AI)'을 골자로 AI산업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 생태계를 조성하는 허브센터다.

AI기술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은 AI위험을 관리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AI기본법'을 대안으로 통과시키며 AI의 진흥뿐 아니라 AI제품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왔다.

AI신뢰성센터가 전주 덕진구에 들어

감·인증 시설 및 장비구축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 신뢰성 테스트 환경 등의 연구가 조성된다.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적 지원(컨설팅, 기술지원, 감·인증)은 품질 향상을 넘어 한국 기업의 생존,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문이 될 전망이다. 전주의 큰 미래역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AI신뢰성센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피지컬AI 실증 국가전략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으로, 전주시 덕진구를 중심으로 한 AI기반 신뢰성 검증·실증·상용화 전주기 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과, 물리 환경 속 AI 기술을 실증하는 거점이 맞물리며, 전주는 명실상부한 AI실증도시이자 기술주권 거점도시로 자리잡게 된다.

정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AI전략포럼을 열어왔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를 맡아 국회와 민간, 학계를 연결하는 정책 간담회를 주관했고, AI 진흥 및 규제 균형에 관한 입법과제, 인재양성 방안, 데이터 주권 논의 등을 선도해왔다. 특히 22대 국회 등원 이후 AI 관련 조찬포럼을 격주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최하여 AI 신뢰성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 노력해 왔다.

정 의원은 "AI기본법을 입법하고 '국가전략예산'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던 성과"라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집중하고 과방위에서 이뤄낸 쾌거"라고 환영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현재 AI발전 만큼 개별기업단위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최신 신뢰성 기술 도입을 연구하는 거점이 전주에 들어오는 것은 AI혁신도시로 출발하기 위한 관문"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조국당 완진무장위, "완주-전주 통합 논의 즉각 중단해야"

군민 동의 없는 통합 추진 반대 완주자족도시 기능·재정자립 강조 "민주당 명확한 의견 밝혀야"

조국혁신당 완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 논의는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없다. 도지사의 열정이나 전주시장의 일방적 주장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완주 군민들의 자발적 동의와 공감의 선행되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

북도당은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정작 군민들은 찬반으로 갈라진 정치적 입장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감당하고 있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갈등을 방치하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완진안무주장수 지역위원회는 "이미 주민 의사에 반하는 통합 논의 자체에 반대한다고 공식 의결했다. 우리는 인근 지자체를 흡수하려는 방식의 발전전략에 분명히 반대하며 서울과 김

포의 통합이 좌초된 것도, 각 지자체의 고유성과 발전전략을 시민들이 지켜내고 있기 때문으로 전북도의 완주군 흔들리는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는 이미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재정자립도와 인구 소멸 대응에서도 스스로 성과를 내왔다"고 전제한 뒤 "전주가 완주를 뚫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군민들은 묻고 있으며 대답할 수 없다면, 통합 추진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완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는 완주군민들과 함께 끝까지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다

음과 같은 사안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전북도지사는 통합논의에서 물러서야 하고 도지사의 전임으로 이미 주민투표의 공정성이 사라졌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소속단체장들의 일방적인 흡수통합 논의를 중지시키고 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원칙을 세울 것. 셋째, 전주시와 전북도는 완주군의 내부 논의를 조용히 지켜 볼 것. 넷째,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는 완주군 내의 통합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 등이다. /장정철 기자

지역 뉴-스를 발 빠르게, 전북의 목소리를 담다
전북타임스신문!

우)54990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금암동),5층 https://www.jeonbuktimes.co.kr 282-9601 283-8800

지방시대위 “5극 3특 전략으로 전국 균형발전”

김경수 위원장, 총대세포럼 참석 행정수도 완성·지방균형성장조 총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 논의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총대세(총청 대전 세종) 포럼과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을 방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수도권 경제·인구·산업 집중으로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성장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의원(회장), 강

준현 의원(사무총장), 이재관·송재봉 의원(부총장)과 이강일·장철민·박용갑·박정현 의원 등 총대세포럼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경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핵심과제”라며, 향후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또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전국 어디서나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근본적인 대전환 전략으로, 특히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0일 세종을 방문해 총대세포럼 및 간담회를 가졌다.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국회 통과 협력

설치법 개정안 연내 통과 목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협력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전북지방 변호사회(회장 김학수)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는 가사·소년사건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원이 이를 계속 담당하면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안전 상정되어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우리 지역 법조계와

도민들이 염원해 온 사안으로,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한 걸음 더 가까이진 진전을 의미한다.

전북도와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에 대해 “도민들이 가사·소년사건 등에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북지방변호사회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남원서 을지연습 테러 대응 실제 훈련

남원종합스포츠타운서 실시 테러 상황 가정 모의훈련 전개 도 통합방위회의 연계, 위원 참관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5년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전북경찰청, 35사단 3대대,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남원보건의료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펌프차·구급차·대테러 장비 등 다양한 장비가 동원됐다. 또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최경식 남원시장, 김광석 35사단장, 전북경찰청장

비롯한 전북도 통합방위위원 및 주요 유관 기관장들이 함께했다.

이번 실제훈련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회의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통합방위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참관함으로써 지역 안보 역할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위기 발생 시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훈련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을 테러범이 점령한 상황을 가정해 ▲테러 상황 발생 및 전파 ▲군특임대·경찰특공대 건물 진입 작전 ▲미상 드론 위협 무력화 ▲폭발물 및 화재 대응 ▲부상자 이송과 방역활동 등 단계별로 진행됐다.

/장정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전주 중앙동·금암동 일대 변화가 점검 및 홍보물 배포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중고 개학기간에 맞춰 19, 20일 이틀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활동을 실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유해환경감시단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감시 활동은 전주시 중앙동과 금암동 일대의 톱카페,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판매금지 표시위반 여부 및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인소 표시위반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펼쳤으며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전단지 등 홍보물도 함께 배포했다.

전북도가 지정한 감시단인 (사)YWCA는 2025년 상반기에만 26회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 활동과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감시단원의 역량강화교육, 유매매체물 모니터링단

등 다양한 청소년보호활동을 추진해왔다.

도내에는 도 지정 감시단인 (사)YWCA를 포함해 시군에서 지정한 감시단까지 총17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중으로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감시 활동 외에도 오는 9월 26일까지 시군 자체적으로 2학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2학기 개학에 따라 자칫 학교주변 또는 변화기의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기”라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의원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퇴직연금·기금 벤처 투자 길 열어 비상장주식 포함 출자15% 확대 공적자금 활용 스타트업 지원

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과 하위규정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이미 일정 수준의 벤처 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퇴직연금만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기금투자를 일부 지정기금(44개)에 한정하고 있고, 출자 비율도 기금

산의 10%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다양한 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현재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약 1,400 조원에 이르지만, 이 중 상당수는 예금이나 채권 등 저수익 자산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협소한 민간 투자 여건과 공적자금의 충분하지 못한 미래산업 육성 역할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 기존에 규제로 막혀 있던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 경로를 열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

을 기존의 44 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 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하고, 출자 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함으로써 더 많은 기금이 민간 벤처(모험)자본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역시 기금의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통합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벤처투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공적자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공자금이 민간 벤처(모험)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며, 투자수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마중물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윤=김영목기자

전북도, 상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안전’ 판정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도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도내 27개 골프장의 토양 160건과 수질 77건을 채취해 총 27종의 농약 성분을 정밀 분석했다.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사용 금지농약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농약관리법에서 사용이 허용된 저독성 농약 7종만 일부 검출돼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지 기자

특히 올해 골프장 유출수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생태독성 검사 결과, 모든 조사 지점 ‘불검출’로 수생태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환경부고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 실시된다.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는 우기 후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농약사용량 증가를 고려하여 현재 시료채취를 진행 중이다.

에어컨 전기세 절약 방법

사용 전 청소하기

안전 점검하기

환기 시켜주기

정속형은 껐다 켜기

인버터형은 계속 틀기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전주시,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4억원 확보

시민 생활 직결 현안사업 투입 생활밀착형 인프라 강화

전주시가 지역 정치권 김옥덕 국회의원·이성운 국회의원·정동영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시민 주요 현안 사업에 사용될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20일 시는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4억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생활SOC 개선·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생활SOC 분야에는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사업 9억원 △삼천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환경개선사업 5억원 △긴 산천 산책로 정비사업 5억원 등 총 31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주민 이용 편의 개선·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에는 △서천교 내진 및 보수보강공사 6억원 △용복동 세천 정비사업 3억원 △금암교 폐교 철거사업 4억원 등 총 1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시는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는 앞으로 지역 현안에 부합하는 신

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 유지해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할 계획이다.

김옥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은 “청소년센터, 체육시설, 교량 등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에 대한 마중물 예산”이라며 “전주가 살기 좋은 생활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전주가 더 살기 좋은 생활도시, 더 안전한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으로,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더 큰 재정 지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은 “이번 특별교부세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통해 전주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 시민 중심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무료 '전주브레이킹스쿨' 운영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11월까지 3개월간 주 1회, 화요일 성인취미반과 수요일 청소년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주지역에 무료 '전주브레이킹스쿨'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주시 청소년과 시민들은 무료로 브레이킹 댄스를 배울 수 있게 됐다.

전주시와 비보이 전문예술법인인 (사)라스트포원은 하반기 전주브레이킹스쿨에 참여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브레이킹스쿨'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전주브레이킹스쿨'은 시와 (사)라스트포원이 수년째 추진해 온 공익 문화·체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은 전주브레이킹스쿨 전용 연습공간에서 오는 9월부터

교육은 브레이킹 국가대표 초대 감독을 역임한 조성국 라스트포원 대표와 브레이킹 공식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라스트포원 단원들이 맡는다.

교육 내용은 △기초 리듬트레이닝 △브레이킹 댄스 기초 동작 △신체능력 강화 프로그램 △플로워 댄스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선착순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라스트포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사업 협약 체결

새벽 출근 노동자 결식 해소 9~12월 매주수요일 식사제공

전주시는 산업단지 내 새벽 출근 노동자들의 결식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9월부터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단체와 2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박현정 (재)전주시복지재단 이사, 양순기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 지부장, 이경진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유혜숙 ㈜유니온씨티 대표이사, 한상복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전주시복지재단은 기부금 관리와 사업비 집행, 한국의 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는 간편식 공급



전주시는 9월부터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단체와 20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주시>

업체 선정과 위생관리를,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모집·관리와 보험 가입을 맡는다. ㈜유니온씨티와 한국폴

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은 배식 장소를 제공기로 했다. 효성·휴비스·전주시산업단지협의

회·NH농협 등 지역 기업·단체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한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오는 9월 3일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엔(&) 수요일엔' 명칭으로 총 15회 진행된다. 기부금 3500만 원을 활용해 김밥·김밥 등 간편식을 제공, 연인원 약 3000명의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따뜻한 아침 끼를 전달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 단체, 시민이 힘을 모아 노동자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켜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를 통해 착한 소비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노동자 복지를 함께 실현하는 범시민적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제4회 소프트웨어 메타 품질 전문가 포럼 개최

AI·품질·소프트웨어공학 전략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소프트웨어 품질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시대의 품질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제4회 소프트웨어 메타 품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지역 디지털 품질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지역 유일의 품질 지원 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품질역량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가와 호남권 품질 전문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품질 전략 방안 논의 △품질 컨설팅 전문 기술 공유 △품질 사업 협력 방안 등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특히 전문가 기술 공유 발표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테스트 방법론: 신뢰성, 안전성, 편향성 품질(박지환 대표) △인공지능 시대의 소프트웨어 공학 및 품질 패러다임 변화(안영희 베타코드 대표) △AI 검증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 제시(전영준 동의대학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실장) 등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할 방안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과제 품질관리 가이드 개발 방향 △품질 지식체계 개발 필요성과 방향,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공학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 △AI 검증 체계 구축 전략과 품질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호남권 품질 전문가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진흥원은 매년 국내 최고 품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메타 품질 전문가 포럼'을 앞으로는 국내를 넘어 해외 협력 체계로 확대해 국제적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폭염 끝날 때까지 시민 안전 위한 현장 중심 대응 강화

9월 30일까지 폭염중대대책 가동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주시가 오는 9월 말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폭염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특보 발령 시 체계적 위기 대응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운영 관리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폭염 중대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여름 평균기온과 폭염일수, 열대야일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자”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주시가시정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주지역 평균기온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28.5도를 기록했다. 또, 전주지역의 경우 전북지역 폭염일수(18.1일)보다 높은 23일을 기록했고, 열대야일수도 전북지역(6.9일)보다 높은 16일을 기록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무더위 속에



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현장 소통 행정을 실천해왔다.

구체적으로 우 시장은 무더위가 가장 극심했던 지난 7월부터 무더위쉼터와 스마트승강장 등 폭염 취약 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꾸준히 청취해왔다.

윤동욱 부시장도 공사 현장과 이동노동자 쉼터, 경로당을 찾아 근로자 건강과 휴식 공간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보호 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각 실·국장과 34개 동장들도 폭염 취약 현장을 수시 방문해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취약계층 안부 확인, 폭염저감 시설 점검 등 현장 행정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더위 탈출처 역할을 하는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35곳 늘어난 총 58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냉방기 작동 상태와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올해 폭염 대책 예산을 지난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5억 4740만 원을 책정, 그늘막과 콜링포그,

스마트승강장, 승강장 냉방시설 등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무더위쉼터 운영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왔다. 전주시 생활지원사와 방문간호사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약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점검 빈도를 격일에서 매일로 늘려 세심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발주 공사장과 민간 공사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농업인과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작업 시간 조정을 권고하고, 마을 방송과 문자 알림을 통해 폭염특보 및 행동 요령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폭염이 끝날 때까지 현장 중심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노사, 2025년 임금 단체 협상안 최종 합의

임금 총액 대비 3.0% 인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지부와 2025년 임금 단체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노사는 본관 3층 가운데홀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윤현호 기획조정실장, 김중우 사무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선희 부위원장, 홍수정 전북

지역본부장, 김진아 전북대병원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양보와 타협 속에서 결실을 이뤄낸 최종 합의안은 임금 총액 대비 3.0% 인상, 가족전화활동비 인상, 업무지원 및 하위직 직급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합의는 의정갈등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교섭 끝

에 파업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협상을 통해 원만한 결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지난 8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방문한 현장 감담회에서도 2년 연속 임단협 합의를 이어온 매우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 바 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대병원 지부는 이번 협약에 앞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작

정협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재적조합원(1884명, 휴직자 제외) 1638명(86.94%)이 투표에 참여해 1297명(79.18%)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양종철 병원장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지역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활동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활동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실시됐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활동은 전북특별자치도유해환경감시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감시활동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판매금지 표시위반 여부,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업소 표시 위반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특히 감시 활동은 전주시 중앙동과 금암동 일대 '룸카페, PC방,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번 감시 활동 외에도 9월 26일까지 시군 자체적으로 2학기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카드 소비 늘면 환급 '상생페이백' 시행

9월~11월까지 시행 월별 증액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20일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3700억원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

통시장 및 삼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 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5 오전 9시부터 11월 30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 이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28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신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장소의 위치는 누리집 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9월 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사용처는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이다.

금일부터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페이백 신청·지급·환수 등 단계별 궁금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용 콜센터를 운영해 상담 안내를 하고, 9월 15일부터는 누리집에서 24시간 상담 서비스(챗봇)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건설협 전북도회, 중대재해 근절 앞장

정부정책 공유 등 특별교육 안전 최우선 생태계 조성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별교육은 중대재해 근절 긴급 대책회의 후 후속조치로 20일 전북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회원사 대표 및 안전담당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건설기술교육원(원장 권대철) 안전관리분야 전문가를 초빙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안전 정책 기조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현장관리 조치 등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업계의 안전관리 분야 현장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1부에서는 비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이 정부 정책 동향과 건설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정부제도 변화와 실무 대

응 전략 등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건설기술교육원 이경복 겸임교수가 건설현장의 안전 조치사항, 주요 사고 원인, 예방 대책 등의 사례 중심 강의로 진행하며 교육에 참석한 현장 실무 임직원들에게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했다.

소재철 회장은 "정부에서 건설산업 재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용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안전 분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뜻을 비치고 있어, 인력과 자급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협회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과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생명존중의 미래 건설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려 고민 없이 매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능동적인 자세로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농촌진흥청, AI 기반 '비전'으로 '꿀벌응애' 잡는다

벌집판 촬영시 30초 안에 판별 강원대와 공동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꿀벌응애'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꿀벌응애 실시간 검출장치(BeeSion)'를 강원대학교(모창원 교수 연구팀)와 공동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꿀벌 폐사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꿀벌응애 감염과 그에 따른 바이러스 확산, 방제 약제 내성 증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응애 번식이 활발한 여름철을 집중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대응 중이다.

그러나 꿀벌응애는 벌집 내부에서 서식해 눈으로 관찰하기 매우 어렵고,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관찰·방제가 더 힘들어 방제 시기를 놓치기 쉽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벌집판을 촬영하면 30초 이내에 꿀벌응애 존재 여부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

장치 '비전(BeeSion)'을 개발했다.

이 장치는 꿀벌응애 외에도 백막병 등 질병 감염 꿀벌이나 날개 기형 꿀벌, 애벌레 이상 등 16가지 병해충 및 생육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며, 감염 수준에 따라 방제, 권고, 주의 단계, 집중 방제 등 과학적 방제기준을 제시한다.

꿀벌응애 분석 정확도는 97.8%에 달하며, 간단하게 설계해 고령자나 초보자도 정확하게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다. 이 장치를 활용하면 양봉 현장에서 꿀벌응애 등 병해충 발생과 꿀벌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해 먼저 사양 관리함으로써 꿀벌의 폐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치를 벌통 150개 규모 사육 양봉장에 적용할 경우, 연간 약 860만 원의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노동력 부족·약제 오남용 문제까지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 장치에 대한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 올해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제품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실증을 거쳐 2028년부터 전국 양봉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꿀벌응애 실시간 검출장치'를 강원대학교와 공동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방해선 부장은 "이번 성과는 경험에 의존하던 양봉에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첫 사례로, 정밀 사양관리와 병해충 예방 자동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 예방 체계를 고도화해 꿀벌을 지키고 양봉산업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의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농업 디지털 혁신 정책과 긴밀히 협력하며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다"고 정책과의 연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군산 JB문화공간, 광복 80주년 '그날이 오면' 성료

JB예술아카데미 선정작 창작시극단 '시동' 무대 밑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군산 JB문화공간에서 지난 15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창작시극 '그날이 오면'을 성료했다.

이번 공연은 전주와 군산 JB문화공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JB예술아카데미 사업 선정작으로, 군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시극단 '시동'이 무대를 맡았다.

김영철 작·연출의 '그날이 오면'은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병을 거쳐 나라를 잃은 민족의 절망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시와 퍼포먼스로 풀어낸 작품이다.

공연은 독립운동가와 문인들의 시낭송, 하계마을 뽕나무 시 퍼포먼스, 창작시극 '나는 고독하지 않다' 등 3부로 구성된 역사적 아픔과 희망의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했다.

특히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

가 더해져 관객들에게 단순한 예술 감상을 넘어 깊은 울림을 전하는 무대로 채워졌다.

군산 JB문화공간 관계자는 "JB예술아카데미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돕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연처럼 역사와 예술이 결합된 무대를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B예술아카데미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 생활문화동호회를 대상으로 문예교육과 창작공연 두 분야에서 사업 공간, 사업비 일부, 웹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JB예술아카데미를 통해 다양한 공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어 갈 예정이다.

JB문화공간의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청은 JB문화공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전북중기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수여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등 우대사항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전북연합회(회장 노갑수, 이하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는 20일 전북중기청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경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인비즈 확인서 수여식 및 신규회원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메인비즈는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혁신활동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한다.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영 활동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기업이 대상이며,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혁신지침인 '오늘로 매일'에 기반해 정부가 기업의 인프라,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확인·선정한다.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과 자금, 판로, 인력 등 정부 지원정책에서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메인비즈 선정 유효기간은 3년이다.

2025년 7월말 현재 기준으로 전국의 메인비즈 기업은 24,898개 사이며, 이 중에서 전북 지역은 725개 사가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회사 금영이앤씨, (유)태산에프엔에스, 유한회사전신푸드, 삼양종합상사 등 총 25개 사가 '25년 신규 메인비즈 확인서'를 수여받았다.

확인서 수여식 직후, 메인비즈 기업

대표들과 신규·기존 메인비즈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규제애로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도 함께 개최됐다.

메인비즈협회 전북연합회 노갑수 회장은 "신규로 선정된 메인비즈 기업과 선배 메인비즈 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북 지역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중기청 전세희 청장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메인비즈 협회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농협, 생성형 AI 활용 산지온라인사업 경쟁력 강화

챗GPT 활용 SNS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마케팅 교육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9일 '생성형 AI 활용 SNS 콘텐츠 마케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지온라인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관내 산지어시스턴트 30명이 참석했다.

산지어시스턴트는 산지유통관리자로서 상품 발굴에서 온라인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으로 플랫폼 활용 및 온라인 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농산물 온라인 유통·홍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내용으로는 △생성형 AI와 챗GPT의 개념 및 활용 방법 △SNS 채널별 효과적인 콘텐츠 기획·제작법 △AI 기반 글쓰기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참석자들은 직접 챗GPT를 활용해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보며, 디지털 마케팅 적용가능성을 체험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산지어시스턴트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전북 농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가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산지온라인사업 내실화,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전북농협은 지난 19일 '생성형 AI 활용 SNS 콘텐츠 마케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전북농협>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건전한 산림 문화 정착' 집중 활동

주요 계곡명산·휴양림 중심 산림이용 수칙 홍보물 배포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요 계곡·명산·산림휴양림 등 탐방객 활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근절·건전한 산림 이용문화 정착' 위한 집중 계도 활동에 나섰다.

점검은 산림청 및 시군과 협력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야영장 외 지역에서의 무단 취사·텐트 설치 △쓰레기 투기 △불법 좌판 설치 △음주·소란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계도 활동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했으며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법적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야영장지 이외의 지역 무단 텐트 설치·반려견 목줄 미착용·고성방가·탐방객 간 불쾌감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안내했다.

이를 통해 도는 안전한 산림이용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이용객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송경호 전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서로 배려하고 지켜나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산림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다문화 학생 '7개 언어'로 한국어 배운다

한국어·베트남어 등 초·중·고 학생용 총 7단계 맞춤형 교재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톡톡 누르면 배움이 쑥쑥' 교재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교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과 기초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됐다.

도내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능력 향상 및 교과 학습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제 학습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재를 제작한 것이다.

'톡톡 누르면 배움이 쑥쑥' 교재는 초·중·고 학생용과 중·고 학생용으로 제작했으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총 7단계 수준별로 구성됐다. 초등 저학년은 국어와 통합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초등 3학년 이상은 국어·사회·과학 과목의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날말 알아보기' → '날말 익히기' → '정리하기' → '실력 다지기'의 단계별 흐름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다. 교재에는 '톡톡' 기능이 지원되어 학생들이 한국어를 포함한 7개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영어)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은 모국어로 학습 내용을 이해한 뒤 한국어로 다시 익히는 과정을 거치며 언어 습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학습 중간마다 마련된 '쉬어가기' 코너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와 문화가 소개돼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구성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교육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총 2,000세트 제작, 학교 및 교육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교재가 다문화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와 학교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9월 1일자 총 172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2층 강당에서 2025년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임명장 수여 대상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장 7명을 비롯해 유·초·중등 교(원)장 54명, 교(원)감 67명, 교육전문직원 51명 등 총 172명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임명장을 수여한 후 새로운 학교와 기관에서 힘찬 출발을 시작하게 될 교(원)장과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유 권한대행은 "임명장을 받은 여러분들이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력신장과 교권보호 등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구성원 모두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생들, 독립운동가 활동 현장서 역사 돌아보다

역사의식 제고 '전대청춘 일한 상하이항일운동유적지방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학생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중국 상하이를 찾아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가 매년 학생들의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 '전대청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17년 시작된 '전대청춘'은 학생들에게 역사적·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어왔다.

그동안 학생들은 고구려 유적지, 항일운동의 본산, 조선통신사의 발자취 등을 탐방하며 선조들의 지혜와 나라사랑 정신을 배워왔다.

올해는 총 32명의 학생이 참여해 상하이의 항일운동 유적지를 돌아봤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만국공묘, 루쉰공원, 성시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의식을 새기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팀별로 역사와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고 숏폼 영상을 제작해 역사를 새롭게 배우고 공유하는 활동도 펼쳤다.

양오봉 총장은 "'전대청춘'은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역사의식 고취 프로그램"이라며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의 정신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에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프로그램"이라며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의 정신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

감동과 희망의 선율 '줄리하프 코리아 호남 앙상블'

전주 한벽문화관 연주회 성료 찾아가는 학교무대도 선배

하프 선율 '줄리하프 코리아 호남 앙상블' 음악이 지역민 마음을 사로잡았다.

'줄리하프 코리아 호남 앙상블'은 지난 2021년 '백제문화제 대상'을 수상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특히 2023년 MBC '인생내컷'에 출연해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초청 연주' 무대를 선보였다.

줄리하프 코리아 호남 앙상블에게 2024년은 큰 도약의 해였다.

전주 한벽문화관 '제1회 줄리하프 호남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앙상블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를 통해 '현대음악콩쿨 대상' 수상하며 음악적 실력과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의 2025년 활약은 '전북 도교육정 찾아가는 학교예술무대 연주'를 선보이며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의 하프 선율을 선물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이날 학사 208명을 비롯해 석사 105명과 박사 67명 등 총 380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진재섭(특수교육학과) 박사가 이사장상을, 왕추이빈 박사와 5명이 총장상을, 수취하오 박사와 6명이 대학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노준 총장은 "졸업생들이 무한한 자긍심이 끓어올라 수 있도록 대학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며,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참다운 인재로 우뚝 서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성민 기자

우석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 총 380명 졸업생 배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20일 전주 캠퍼스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사 208명을 비롯해 석사 105명과 박사 67명 등 총 380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진재섭(특수교육학과) 박사가 이사장상을, 왕추이빈 박사와 5명이 총장상을, 수취하오 박사와 6명이 대학원장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노준 총장은 "졸업생들이 무한한 자긍심이 끓어올라 수 있도록 대학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며,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며 "졸업생들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참다운 인재로 우뚝 서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학부모교육 운영

위기 청소년·보호자 정서적 회복

전북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는 20일 센터 내 강당에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과 대안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육 '마음타임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정 내에서 지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는 강사를 초빙, 치유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했다.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을 기반으로 자녀

와의 관계 회복은 물론 부모의 자기돌봄을 중심에 둔 내용으로 구성해 학부모의 자녀 이해 및 자기성찰능력을 향상하고자 했다.

또한 '부모 공감 Talk Q&A' 시간을 통해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자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대안교육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교회, 성경 속 '빛의 회복' 조명

전주교회(지파장 광종렬·이하 신천지 전주교회)가 광복절을 맞아 지난 16일 '광복 : 빛의 회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약 15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성경을 중심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세미나는 성경 속 '빛의 회복'을 신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조명했다.

모건과 함께 참석해 김 씨는 "성경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어 이해가 잘 됐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전주교회 관계자는 "광복의 의미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 신앙 속에서도 회복과 희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무더운 여름 냉방병 조심

냉방병 예방수칙

- 예방법 1**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 맑은 공기 유입에 신경 써 주세요.
- 예방법 2** 실외와의 온도차는 4~5도 이내로 설정 해 주세요.
- 예방법 3** 냉방기의 찬 공기가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 예방법 4** 체온을 유지해 주세요.

정읍시, 노인·장애인급식소 이용자 균형 있는 식생활 형성 교육

전북과학대학교(총장 김상희)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내 노인·장애인급식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균형 있는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며 건강한 생활습관 확장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관내 15개 노인·장애인급식소 등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식품구성자전거를 활용한 영양 교육 △식품군을 고루 활용한 감사 샐러드 모닝빵 샌드위치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혜진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이용자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와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직원 현장 대응력 높인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정읍시는 지난 19일 복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담당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민·관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김행숙 복지환경국장이 직접 진행했다. 그는 "복지는 사립이다"라는 철학을 전하며 실무 중심 강의를 이어갔다.

교육 과정에서는 통합사례관리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다루고, 다양한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김행숙 국장은 "복지 현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담당자 간의 경험과 철학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뒤편 합동 집중 단속 피해 예방 홍보 총력

군산시가 방문판매 행위(뒤편)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건전한 소비문화 확립을 위해 합동 지도 단속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보건행정과로 꾸려진 합동단속팀은 지난 11일과 18일, 관내 등 록된 방문판매업 등을 방문해 제품 등록 여부 및 유통기한 확인, 계약서 및 영수증 제공 및 환불 안내 등 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지도 점검했다.

이어, 군산노인종합복지관과 금강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예방 포스터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피해 예방 신고 요령도 홍보했다.

불법 방문판매업의 경우, 무료 증정이나 사은품 지급 등의 상술을 미끼로 고가 및 불법 건강식품, 의약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해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동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수사 의뢰와 행정처분도 취해질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방문판매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소비자의 심리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서 뒤편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두성에스비텍(주), 정읍시에 공장 증설

제3일반산단에 총 88억 5천만원 투자 10명 일자리 창출



정읍시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성에스비텍(주)과 투자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사진=정읍시>

정읍시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두성에스비텍(대표 김연승)과 투자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시는 20일 시청에서 이학수 시장과 김연승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두성에스비텍(주)은 1988년 설립된 기업으로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 등을 생산한다. 주요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생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읍 제3일반산단단지 내 1596㎡(483평)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 이번 투자 규모는 88억 5000만원이며, 신규 인력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은 중국 전기차 시장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증설 투자는 기업 성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공사는 올해 10월 착공해 내년 6월 생산 시설을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뿌리내리고 성장해온 두성에스비텍(주)의 증설 투자에 감사드린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연승 대표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우선으로 활용하고 상생·협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K-주얼리산업 중심도시로

공동 브랜드 운영 등 청년 창업기업 지원



익산시가 주얼리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청년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시는 주얼리산업의 재도약을 통해 청년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은 풍부한 기반 시설과 숙련된 기술 인력, 낮은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주얼리 대표 도시의 명성을 이어 왔으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시장 환경 변화로 성장이 주춤한 상황이었다.

익산시는 올해 역점 시책으로 '청년이 창업하는 도시 조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주얼리 산업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올해 국가 공모사업인 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 3개년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술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 기반 구축을 목표로 취업역량 프로그

램 개발, 기술·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역 주얼리 공동 브랜드 '에드베네'를 통해 공동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홍보·유통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정한을 시장은 "현장

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익산이 K-주얼리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1조 8,507억원 규모 2회 추경 편성

1,732억 증액...민생회복 지역산업 강화 중점

군산시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생활 여건이 어려워진 시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1,732억 원(10.32%)이 증가한 총 1조 8,50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556억 원과 특별회계 1,951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산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민생회

복 소비쿠폰에 771억 원을 투입해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이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도 58억 원을 반영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미래 성장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30.5억 원) △차세대 CCU 기술 고도화(2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시민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육회천 지방하천 정비(37억 원) △육회천 소하천 정비(14억 원) 등 재해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투자가 이뤄졌다.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69.7억 원) △스마트도

시 솔루션 확산 사업(24억 원) 등이 반영됐다.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실었다. △K-관광성 육성사업(21.6억 원) △월명체육센터 건립(10억 원) 등을 편성했다.

기타 주요 현안 사업으로 △세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편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나가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치킨과 맥주로 물드는 '익산 중앙동 치맥 축제'

지역 향토 브랜드 총출동 다이로움 결제 10% 혜택

시원한 맥주, 뜨거운 치킨, 그리고 음악과 열정이 어우러진 여름밤의 축제가 익산 도시를 뜨겁게 달군다. 익산시는 '2025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29~30일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익산시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달하면 떠오르는 도시, 익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중앙동 치킨로드와 문화예

술의 거리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하림, 다사랑, 세브브로이, 이리맥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브랜드가 총출동하고, 치킨로드 상인과 문화예술의 거리 소상공인도 힘을 보탠다.

총 11개 먹거리 점포와 이동식 야시장 매대, 장터가 운영돼 다양한 닭 요리와 지역 맥주를 맛보며 축제의 진수를 즐길 수 있다.

축제 첫날인 오는 29일 오후 7시에는 개막식과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전자음악(EDM) 파티 등 화려한 축하 공연이 이어져 현장을 뜨겁게 달군다. 축제

현장에서는 다이로움 빠른응답(QR) 결제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가 열리고, 톨렛 돌리기와 무대 경품 행사도 진행돼 즐거거리를 더한다.

전영수 소상공인교장은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은 단순한 먹거리 행사를 넘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축제"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한여름의 열기를 만끽하며 즐겁게 어울릴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썸뽕페스티벌' 부스 참여업체 모집

29일까지 총 12개 팀

군산시가 '2025년 군산 썸뽕페스티벌'에 참여할 부스 운영 업체를 29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중식 10팀 이내 △체험 프로그램 2팀 이내로 총 12개 팀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일까지 대표자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련 업종의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군산시 관광진흥과 미식관광계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2025년 군산 썸뽕페스티벌'은 10월 9~12일까지 4일간 장미동 백련

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군산만의 특색있는 썸뽕과 중식 메뉴는 물론 관광객이 직접 즐길 수 있는 썸뽕 행사와 다양한 체험행사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모든 중식 부스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0.5인분' 단위로 판매되면서 관광객이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제 썸뽕은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넘어 군산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확장됐다. 올해 축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체력인증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전국 2위

광주·전라권역 1위 성과

정읍체력인증센터가 2025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위, 광주·전라권역 1위에 오르며 우수한 운영 성과를 입증했다.

20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력 인증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설문문을 통해 진행했으며, 운영 인력, 센터 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95.4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인 90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운영 인력의 전문성과 센터 환경 등 전 항목에서 고른 호응을 얻는 등 체계적이고 친절한 서비스가 시민 만족도를 끌어올린 결과로 평가된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지역 주민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1만 2000건 이상의 체력 측정과 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운동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보조금 집행 과정 투명성 강화

보조사업 담당자 소통 간담회

군산시가 20일 '보조사업 담당자 청렴 소통 간담회'를 열고, 보조금 집행 과정의 애로사항 청취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7월에 진행된 보조사업자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당시 보조사업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보조사업 담당자들의 행정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논의는 △'보템e'를 보템' 사이트 활용 △보조금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진행

됐다. 특히, '보템e'를 보템' 사이트는 문화예술과 유덕한 주무관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구축 배경과 활용 방법을 공유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보조사업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담당자 간담회에서 다시 공유·검토함으로써, 제도가 실제 현장과 맞닿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야 한다"라며, "유덕한 주무관이 시작한 노력의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시, 민방위 훈련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훈련

익산시가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익산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시 전역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진행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대비훈련으로 지난 18일 시작해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훈련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전시작전편성, 민방위 대피, 다중이용시설 테러대피 실제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날 공습 상황을 가정해 오후 2시 공습경보 발령을 시작으로 신동 119

안전센터에서 시청까지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 익산점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민·관·경·소방 합동 대피 훈련이 동시에 전개됐다.

각 현장에서는 사전 교육을 받은 민방위 유도요원들이 훈련 참가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소로 안내했다.

대피소에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 교육이 병행돼 훈련 효과를 높였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 진행되는 대테러 대응 훈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으로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북분자주 '선운', 뉴질랜드 첫 수출

1만 병 수출 계약 체결 현지 마트·한인마켓 판매 해외 시장 본격 진출

고창군은 서해안 북분자주(대표 송지훈)가 뉴질랜드 시장 진출을 위한 초도물량 1만 병(약 3500만원 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출하 준비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선운'은 엄선한 고창산 북분자를 황토 토굴에서 발효·숙성시켜 깊은 맛과 향을 살린 프리미엄 술이다. 2003년 대통령하사주, 2005년 APEC 공식만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 건배주로 선정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물량은 뉴질랜드 현지 마트와 한인마켓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오세아니아 시장 확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송지훈 대표는 "세계적으로 K-푸드와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북분자주가 해외에서 인정받는 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라며 "더 많은 나라에서 고창 북분자주를 맛볼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민증 1호 현판...디지털시민 혜택 본격화

가맹점 24개소 모집 완료 5~10% 할인·서비스 혜택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김제시민증 1호 가맹점에 현판을 증정하고 디지털 시민에 대한 혜택을 본격화하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20일 오전 11시, 요촌동 소재 카페 오하우스에서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 제1호 가맹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김제시민증 가맹점 모집'에 총 24개소가 참여함에 따라, 첫 번째 가맹점 지정을 기념하고 시민증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성주 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판식에서, 시는 제1호 가맹점 대표에게 가맹점 지정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김제시민증 가맹점은 카페(12개소), 소매업(8개소), 음식점(2개소), 생활업종(2개소)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해 김제 디지털시민증을 발급한 시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제시가 김제시민증 1호 가맹점에 현판을 증정하고 디지털 시민에 대한 혜택을 본격화하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사진=김제시>

다.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증'은 김제시 주소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간편한 인증절차로 발급되며, 지역 공공시설과 가맹점에서 제시 시 5~10% 정도의 약정된 할인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가맹점 확대를 위해 관내 음식점, 숙박업, 체험업소 등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모집을 이어가 김제

디지털시민증을 발급받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민증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제27회 지평선축제', 더 풍성해진다

10월 8~12일 개최 63개 프로그램 확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운영될 63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지평선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추석 연휴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흥미롭게 담아낸 '지평선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난 정평구 선생의 비거를 기리는 '지평선 종이 비거 날리기 대회', 오징어게임을 축제 특성에 접목시켜 다양한 민속 놀이로 재현한 '지평선 짜리퐁이 게임' 등이 새롭게 준비돼 관광객들의 이목

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기간 개최되는 축제 특성에 맞게 '지평선 한가위 가족오락관'을 비롯해 '지평선 가족요리경연대회', '아궁이 쌀밥 짓기', '지평선 소원연 한 마당' 등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가족과 함께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농경문화를 대표하는 축제인 '지평선'을 담아낸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풍년기원 임석 줄다리기' 등 전통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는 '김제 시민 사진전'과 지역 내 무형문화유산인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김제시 마스코트 짜리퐁이와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도 마련해 지역의 정체성을 축제에 더욱 표현해 낼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 선정

국민 부문 김진수씨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등 선정

고창군이 '2025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빛나는 우수 제안 10건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고창군의 공약사업인 '군정에 세대·계층별 평등한 참여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모 부문을 군민과 공무원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제안 자격을 기존 군민과 공무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접수한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28건과 공무원 9건을 포함한 총 3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0건(국민 5건, 공무원 5건)을 선정하고 2차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확정했다.

국민 부문에서는 김진수씨의 '농촌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안'이 우수상으로 선정됐으며, 발표심사에 응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참여상(10만원)이 주어졌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에 김남곤씨의 '공중주택관리지원사업 긴급 안전보수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혁', 우수상에 임형호, 최한솔씨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탁사업 농가 계약 불가 민원 해소', 장려상에 오현미씨의 '임야 농지 전환 규제 간편화'가 선

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군수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장려상 30만원이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은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제안자에게는 참여상(10만원)이 주어진다.

김영식 부군수는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군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과 꾸준히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농악 꽃대림축제' 29일 막 올려

농악전수관서 29~31일까지

고창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2025 제6회 고창농악 꽃대림축제'가 8월 29~31일 3일간 고창농악전수관에서 개최된다.

고창농악보존회는 무형유산 고창농악을 전승 및 보존하는 단체로, 공연·교육·전시·체험·학술연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생국가유산사업 '고창농악 상설극판', 전수교육관활성화사업 '사시사철 굿피는 고창', 고창농악 전통예술학교 운영, 고창농악 아카이빙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꽃대림 축제는 고창지역의 세시 풍속 중 비롯 필 무렵 풍년을 기원하며 연행했던 '꽃대림굿'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대와 문화가 소통·교류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중재 사업으로 진행된다.

축제는 인문학마당, 특별마당, 공연마당, 연희마당, 참여마당으로 구성되며 인문학마당에서는 농경과 농악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특별마당



은 꽃대림영화관과 고창농악보존회 창립 40주년 기념 사진전으로 구성된다.

공연마당으로는 서커스·마임 공연, 퓨전 국악대, 인디밴드 공연 등이 있으며, 연희마당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와 청도차산농악, 고창군농악단연합회의 고창농악 판굿, 교방춤전, 각 지역별 농악 개인놀이 열전을 볼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꽃대림 축제를 계기로 많은분들께서 우리농악과 전통 굿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23~24일 석암문화대상 가사가곡시조창경향대회개최

(사)부풍울회(회장 은형선)가 주관하는 제19회 석암문화대상 및 제27회 가사가곡시조창 경향대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에서 개최된다.

시조창의 명인 석암 정경태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정악의 보존과 대중화를 위해 열리는 전국 정가 경연대회로 매년 전국 각지에서 100여명의 참가자가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경연은 23일 가사가곡(신인부, 명가부) 부문, 24일에는 석암문화(명창부, 대상부) 부문으로 진행되며, 가사가곡 명가부 장원(도지사상) 및 석암문화 대상부 장원(부풍울회장상)을 비롯한 각 부문별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전통 정가를 계승하는 한편, 세대와 지역을 넘어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정가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정가 대중화에 앞장서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읍,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대피 시범 훈련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25년 을지연습 기간 중인 20일 오후 2시 부안읍 미소가에 아파트에서 실전과 같은 민방위 대피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소가아파트는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실제 상황 발생 시 대피 및 구조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장소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지하 대피소로 이동하는 실전 훈련을 통해 대피 절차와 행동요령을 숙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시부터 5분간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위해 부안읍 차량 이동도 통제된다. 해당 구간을 운행하던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로 훈련 상황을 청취하면 된다.

2시 15분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으며, 20분 경보 해제가 발령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훈련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실제와 같은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 재난·전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 대학생 선배와 함께 하는 '꿈 키움진로 멘토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지난 19일 여름방학을 맞아 지평선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평선학당 출신 대학생들을 초청해 '꿈 키움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평선학당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대학의 진학한 8명의 선배들이 멘토로 참여해 희망 대학에 진학하게 된 배경, 학습 노하우 및 교과별 학습 전략 등을 자세히 전달해 후배들의 진로 선택과 대학 진학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재단은 지역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고 여러 분야의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대, 교대 등 다양한 학과 출신의 대학생들을 멘토로 섭외했으며, 참석한 학생들은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구체적인 학습 전략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이사장은 "지평선 학당 출신 선배들이 들려주는 경험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지자체 합동평가 추진상황 중간 점검

2025년 우수 지자체 선정 목표

고창군이 20일 김영식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합동평가 정량평가 지표 총65개중 7월말 자체 목표인 달성도 60%미만 지표 9개와 2024년실적 미달성 지표 4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5년 우수 지자체 선정을 목표로 연말까지 최종 목표치 달성을 위한 추진상황 중간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전년도 미달성 지표는 대책을 강구해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고 구 매출 등 전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고창=백종규 기자

한 전략적인 대응과 함께 적정 추진 시기 등을 꼼꼼하게 챙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목표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합리한 지표에 대해서 목표치 조정 및 불합리함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 지표 담당자에게 적극적인 개선 건의를 주문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전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실적 관리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전북자치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점검과 자체교육을 통한 목표 추진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학술대회 성황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2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관련 전문가 및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를 주제로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발표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의의와 활용방안, 세계시민혁명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 위상 고찰, 동학농민혁명 백산 봉기의 실제 규명 및 장소성 검토, 19세기 후반 부안지역 인적네트워크와 사회상 순으로 이뤄졌다.

학술대회에서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부안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인 사건을 넘어 세계 시민혁명으로서 가치

/부안=신상수 기자

를 지니고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참가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했다.

군은 현재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2021년부터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 전당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세계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논의하며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부안의 역사와 정신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시립도서관, 김지연 작가 초청 부모교육 특강

김제시립도서관(시장 정성주)은 오는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김지연 작가를 초청해 북스타트 부모 교육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모교육 특강은 영유아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북스타트 프로그램 일환으로 김지연 작가는 다수의 그림책을 집필하고 북스타트 코리아 자문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다.

강연에서는 '북스타트의 의미와 그림책의 이해'를 주제로 부모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독서하는 방법 등에 대해 사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김제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오전 10시부터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북스타트 부모교육 특강을 통해 그림책의 가치와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남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본격 시동

대산면에 생산·가공·R&D 통합 청년농 스마트팜 10년 임대 지원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



남원시 대산면 일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단지 <사진=남원시>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미래 농업 혁신의 심장부로 거듭났다. 지난 7월 농업육성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남원시는 국도비 543억 원을 확보하며, 대산면 일원의 60.4ha 부지에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R&D)이 한 데 모인 스마트농업 거점을 본격 조성한다.

주요 사업은 청년농업을 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자동 환경제어와 에너지 효율 설계, 데이터 기반 재배관리 시스템을 갖춘 첨단 온실을 최대 10년간 임대해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26년 12월 착공해 2028년 상반기 첫 입주자 시작될 예정이다.

여기에 소각장 폐열을 활용해 난방비를 대폭 절감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도 빠르게 추진된다.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농업과 에너지 절감을 결합한 대표적인 탄소중립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농업법인 대규모 창업단지, 기능성·바이오소재 작물 재배단지, 생산부터 가공·유통·브랜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스마트팜 혁신단지, 교육·실습·창업을 연계한 교육 실증단지가 단계적으로 들어선다. 전체 사업

은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완공 시 지역 농업인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가공·브랜드 시설을 활용해 부가가치와 수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 증대,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테라' 맥주로 완주 와일드푸드축제 알린다

하이트진로, 홍보라벨 부착 테라 10만 병 전북에 출시

완주에 공장을 둔 향토기업 하이트진로가 맥주 '테라' 500ml 10만 병에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홍보 라벨을 부착해 오는 26일부터 전북 전역에 출시한다.

20일 완주군청에서 열린 기념행사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해 김동우 공장장 등이 참석해 라벨을 부착한 맥주 일부를 전달했다.

이번 홍보는 소비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축제를 알리고, 사전 인지도를 높여 축제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제 기간에는 하이트진로가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기업 브랜드 홍보와 지역축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상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력을 통해 축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13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개최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이서 주민들의 숙원으로 군의회 이순덕 의원의 제안에 혁신도시에 조성된 '향토 맨발 걷기길'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주민 의견 반영 '맨발 걷기 황톳길' 호응

이서 혁신도시 600m 구간 준공 이순덕 "노인일자리 연계할 것"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의 제안으로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에 조성된 '향토 맨발 걷기길'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 이서면 혁신도시를 가로질러가는 국도1호선 옆 완충녹지 5호(갈산리 644번지)구역에 약 600미터 구간, 1200㎡ 규모로 조성된 황톳길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이순덕 의원의 적극적으로 완주군 측에 건의해 지난 3월 21일 착공해 지난 5월 29일 준공됐다.

특히, 이순덕 의원은 평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휴식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맨발 걷기길 조성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북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걷기길은 기존 편백숲과 연결돼 산책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완주군은 주민 공모를 통해 황톳길의 공식 명칭을 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재는 주민들이 손수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공근로·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성과를 낸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다른 정책에도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철저히 이행 당부

농지관리농약기준 등 의무준수 미이행 시 직불금 최대 10% 감액

순창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급 대상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직불 관련 교육 이수 등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행 기간은 전년도인 2024년 10월 1일부터 등록연도인 2025년 9월 30일

까지이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사전 점검과 주의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군은 준수사항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8월 21일에는 순창군 4-H연합회의 드론방재 봉사단과 연계해 2차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농지 주변의 울바른 영농폐기물 관리 실천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촌 환경 개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18~26세 여성 군민 HPV 예방접종 지원

소득 관계 없이 최대 3회까지

순창군은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는 18~26세 여성(1998~2006년생)군민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생식기암, 구인두암 등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실제로, 자궁경부암은 대한민국 여성 암 중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 중 하

나로, HPV 예방접종은 여성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권장되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HPV 예방접종 대상(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외에도 소득과 관계 없이 18~26세 여성군민에게 HPV 예방접종을 최대 3회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접종 희망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지참해 순창군보건지원에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제35회 무궁화 나라꽃 축제' 30일 개막

무궁화 화분 분양·그림대회 등 180여 종 무궁화 품종 전시

완주군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광복 80년, 무궁화특별시 10만 완주, 무궁화 향기로 피어나다'를 슬로건으로 한 제35회 나라꽃 무궁화 완주축제를 오는 30일 고산문화공원(무궁화대마실물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무궁화향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화분반지를 찾아라' 등 대표 이벤트와 식전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무궁화 화분 나눠주기, 무궁화를 느

낄 수 있는 무궁화 그림대회, 무궁화 시예대회, 무궁화 체험프로그램, 전통놀이,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180여 종의 무궁화 품종을 감상할 수 있고, 완주에서 생산한 무궁화 묘목 400여 본도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부대행사인 어린이 무궁화 그림대회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당일 현장 접수(13시까지)로 가능하다.

입상자들에게는 산림청장상(1점), 전북도지사상(1점), 전북교육감상(1점), 완주군수상(2점), 완주교육지원청장(2점)과 메달을 수여하고 입상자들은 무

궁화전시관에 전시가 된다.

또한 '한글서예'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하기 위해 2025년 완주 한글 서예 워크숍을 함께 개최해 한국 서예계를 빛낼 신인 작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입상자들에게는 완주군수상(1점), 완주군의회위원장상(1점), 전북한글서예협회장상(1점)을 수여한다.

축제 전날과 축제일에는 캠핑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나라꽃 무궁화에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소비쿠폰 7만 2천여건 신청...지역 상권 활력

온·오프라인 72,540건 집계 2차 신청 9월 22일, 10만원 지급

남원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지난 17일 기준 신청률 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청 건수는 72,540건으로, 이 중 온라인 신청 32,965건(45.4%), 오프라인 신청 39,575건(54.6%)으로 집계됐다.

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신청·배부 시스템을 정비해 사업 초기부터 집행 체계를 갖춰 빠른 시일 내 높은 지급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남원시유명동 시책인 '찾아가

는 소통행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청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직접 신청을 지원하는 세심한 행정을 펼쳤다. 고령층이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안내하고 도와줌으로써, 행정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 곁에서 함께하는 훈훈한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소비쿠폰은 이미 지역경제 회복에 눈에 띄는 효과를 내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은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시민들은 생활비 절감과 함께 체감 가능한 민생 안정 효과를 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며, 계층과 상관없이 10만원씩 지급된다.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소득기준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본기준으로 삼고, 합리적인 지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2차 신청 또한 정부의 세부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홍보해 시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참가자 모집

내달 16일, 전통시장서 개최 JTV 방송 시장 특산품 홍보

순창군이 오는 9월 16일 오전 11시 순창읍 전통시장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상인연합회와 순창전통시장상인회가 주최하고, JTV 전주방송이 주관, 순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지역 주민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가요제 참가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에도 오전 9시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가요제는 오전 11시 개최 선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주민 노래자랑을 비롯해 초청 가수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인기상 5만원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상금은 모두 은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이 오는 9월 16일 오전 11시 순창읍 전통시장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사진=순창군>

남원시, 지리산권 주민 대상 AR/VR 콘텐츠 제작 특강 진행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소프트웨어(SW) 지역특화 교육사업의 3번째 SW/ICT 특강인 'AR/VR 스토리 콘텐츠 제작의 참가자'를 오는 9월 5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SW미래채움전북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리산권(남원, 장수, 곡성,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지역민 만 16세 이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신 IC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과정은 AR·VR 기기 활용과 가상환경 이해를 시작으로, VR 가상공간 디자인과 스토리 중심의 AR 콘텐츠 제작 실습까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제작한 AR/VR 스토리 콘텐츠를 발표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특강이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리산권 지역민들에게 최신 ICT 기술을 체험하고 미래 산업에 대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SW미래채움전북센터 전화(063-634-8972) 및 이메일(jbmi@playcoding.kr)로 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기초영농기술교육 접수 토지매매·시 홍보·농기계 등

완주군이 신규농업인과 귀농 희망자를 위한 기초영농기술교육 모집을 22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에게 농촌 생활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품목 선택 및 영농 초기의 궁금증을 해소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귀농귀촌인을 위한 토지매매, AI를 활용한 홍보기법, 농기계 교육 등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주 화, 목 4시간씩 총 9회 4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신규농업인(10년 이내) 및 귀농 희망자이며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최장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상반기 교육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1기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신규 농업인들이 농업을 어렵지 않게 배우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120만원봉사 하반기 운영 재개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에 직접 찾아가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120만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이동빨래방'을 이달 20일 산내면 삼화마을, 부운마을에서 하반기 운영을 재개했다.

120만원봉사대는 연 150회(300개 마을) 일정을 추진하며, 해당일 지정된 마을에 방문하여 전기·가스·수도·보일러·농기계 점검 및 수리, 이동빨래방, 청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봉사단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160개 마을 총 80회 추진하며, 3,052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했으며,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의 날'도 2회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취약계층세대의 일상생활 불편으로 120만원봉사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대표번호(120)로 연락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장수군의회, 2025년 을지연습 현장 격려 방문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지난 19일, '2025년 을지연습' 현장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장수군청 1층 군민회관에 마련된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상황을 살펴보고, 공무원들을 비롯해 군·경찰·소방 등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한주 의장은 "머더운 날씨 속에서 나흘간 밤낮으로 계속되는 을지연습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국가비상사태 대응 능력 제고하는 소기의 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의회, 2025 을지연습 상황실 방문-관계자 격려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을 방문해 '2025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종민 의장, 양주영 부의장, 김중규 운영행정위원장, 정일윤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을지연습 훈련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해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최선을 다해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민 의장은 "머더운 날씨에도 군민의 안전과 지역 안보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실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굴삭기-지게차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수강생 모집

진안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반배움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 과정'으로 굴삭기와 지게차 운전기능사 및 드론조종 2종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20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전문 강사의 이론과 실기 지도가 함께 운영돼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으로 굴삭기-지게차의 경우 교재구입과 시험응시료를 제외하면 무료이고, 드론 조종 2종의 경우 교육비 30만원의 자기 부담료가 있다. 교육 일정은 △굴삭기-지게차 8월 30일~9월 28일 △드론 조종 9월 8일~10월 3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굴삭기 10명, 지게차 3명, 드론조종 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특히, 굴삭기와 지게차 운전기능사 교육장소인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는 올해 상반기에만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실습장 환경을 리모델링했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배움을 위한 양질의 자격 취득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반배움 1인 1자격증 교육 과정의 수강신청은 모두 20일부터 '진안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QR코드)으로 신청 가능하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전북형 반할주택 업무협약 체결

임실읍 120세대 공급 청년·신혼부부 파격 지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전북형 반할주택 120세대가 임실읍에 들어선다. 임실군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전북형 반할주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 민 임실군수와 김관영 도지사,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남원시와 장수군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대보증금 최대 5천만원 무이자 지원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 책정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임실군 전북형 반할주택'은 임실읍 내 임실군청과 임실고 사이에 건립하여 12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전북형 반할주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임실군>

도보권 내에 보건의료원, 초등학교, 터미널, 마트, 복지시설 등이 인접해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35사단과 2km, 임실 제1농공단지와 500m 거리에 있어 출퇴근 시간 절약 등 직주근접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지면 청년과 신혼부부, 임실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군 제35사단과 제6탄약창 군무원,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전북형 반할주택 이외에도 임실읍과 관촌면·오수면 지역에 총 1,000세대 규모의 공공·민간임대주택 등 건립을 본격 추진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1,000세대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및 분양아파트가 들어서면 군무원 및 근로자들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 인구의 지역 정착을 통해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인구 전월대비 21명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뚜렷

진안군은 지난 14일 기준 인구가 총 24,192명으로 집계되어 지난 7월 말(24,171명) 대비 21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간 내 인구가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은 백운면 행복주택 조성과 부귀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성과이다. 먼저, 백운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조성한 행복주택에 12세대 46명이 전입하면서 전월 대비 28명이 늘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아이를 둔 가족단위 입주가 많아, 백운면의 인구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부귀면은 지난 8월,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을 통해 도시 학생과 가족을 맞이하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다. 18세대 36명이 전입하면서 7월 말 대비 19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6명, 초등학생 17명, 중학생 1명이 증가했고 이는 교육 인프라와 주거 공간을 결합한 맞춤형 사업이 지역 활력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진안군은 청년층과 가족단위 전입세대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교육·돌봄·일자리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온 결과,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번 전입 사례는 단순한 숫자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활력에도 큰 의미를 가진다. 백운면 행복주택 입주 가구는 주로 청년층과 자녀를 둔 세대가기 때문에 마을학교, 지역 상권, 공동체 활동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부귀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 들어온 가족들 역시 지역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육·문화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어, 향후 장기 정착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군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인구활력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주여건 개선 △기초·기초 지원 확대 △농촌 유학 활성화 △주거복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단순히 일시적 전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공영주차장-복합문화시설 조성 급경사지 정비 등 3개 사업

장수군은 지역 현안 해결과 재원 확보에 투자할 올해 상반기 행정안 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불균형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 재난 대응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수군은 환경미 제정 여건 속에서도 박희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총 3개 사업 15억 원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재정 부담으로 추진에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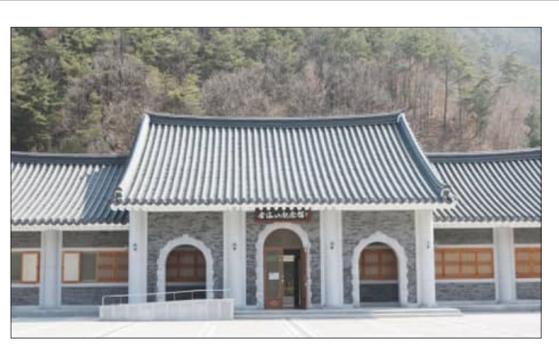
도를 내기 어려웠던 주요 현안 사업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군은 확보된 예산을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룰 예정이다. 대상 사업은 △장수중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5억 원,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5억 원, △산전3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도로사면 정비 5억 원 등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최종보고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명회 개최 지역 산업 생태계 재편

진안군은 20일 오후 홍삼농공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최종보고회」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명회」를 열고 지역 산업 인프라 조성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현안사업 추진단, 관계부서 및 기관, 용역 관계자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최종보고회에서는 연장농공단지 내 구)원광전자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대공장 12

개, 스타트업 임대사무실 9개, 공유카페, 창업보육공간, 체력단련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70억, 도비 9억, 군비 21억)이 투입되며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설명회에서는 최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해 설명하며 연장농공단지 총사업비 182억(1단계 사업비 141억), 홍삼한방농공단지 총사업비 291억(1단계 사업비 170억) 규모로 사업비 국가예산반영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음을 알렸다. 더불어 2026년 전북형 스마트공장 추진계획 보고도 함께 진행돼 진안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주요 산업 인프라 사업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향후 진안군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이번달 말 예정된 건축기획 심의 절차를 거쳐 2028년 7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해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방침이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또한 사업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전해산기념관,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

광복 80주년 맞이 전국 82개 현충시설 참여

장수군전해산기념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조성예 차를 가하고 있다. 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 1,000세대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및 분양아파트가 들어서면 군무원 및 근로자들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 인구의 지역 정착을 통해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의병장 전해산 장군의 삶을 보존·전시하며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역할을 해왔다. 스탬프투어 참가자는 인터넷을 통해 스탬프 북을 신청·수령한 뒤 전국 현충시설에 비치된 대한민국 훈장 모양의 스탬프를 직접 찍으며 여정을 이어간다. 스탬프 북에는 독립운동과 국가 수호를 주제로 한 10개 탐방 코스와 각 시설 정보, 스탬프 소개가 수록돼 있다. 참가자가 15곳 또는 25곳 이상 현충시설 방문을 인증할 경우 추천을 통해 독립운동과 국가수호를 상징하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장수군전해산기념관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공휴일은 휴관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3무(無) 축제 명성 지킨다!

무주소방서와 안전 협력 간담회

올해도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 개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무주군은 20일 무주소방서와 '안전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원활한 이송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와 무주소방서 대응예방과 관계자들이 만나 축제 현장 환자 발생 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전북형 응급환자 이송 체계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지침 및 연락 체계를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최고의 축제는 방문객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축제라는 생각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행사 기간 현장에서는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 상황에 맞는 처치와 이송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2학기 만디장학생 모집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이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2학기 '만디 장학생'과 '국가대표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9월 1일 기준, 보호자 중 한 명과 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이 모두 무주군으로 돼 있어야 한다. 만디 장학생의 경우는 기존일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복학생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년 이내여야 한다. 1학기에 신청했다라도 다시 신청해야 2학기 선발 대상이 된다. '국가대표 장학금'은 기존일 현재, 국가대표 선수가거나 국가대표 상비군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선발 선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면 1

인 1회에 한해 1백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무주읍 한풍로 326-26, 무주군평생교육원) 하면 된다. 접수 시 △장학생 지원서를 비롯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공통) 및 학생 본인 주민등록초본을 공통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만디 장학생은 △대학 재학증명서, 국가대표 장학생은 △국가대표 선수거나 국가대표 상비군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무주=최희호 기자

임실군, 과수 탄저병 중점 관리 기간 지정

임실군이 오는 31일까지 과수 탄저병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사과 및 복숭아 등 주요 과수 탄저병 현장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사과, 복숭아 등에 과수 탄저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철저한 사전방제와 예찰을 해당 농가에 당부했다.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는 곰팡이병(진균병)으로 사과 등의 경우 초기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심한 경우 표면이 움푹 들어가며 내부에 원뿔형으로 깊게 부패가 진행된다. 또한 복숭아의 경우, 갈색 반점이 확

대되고 병든 부위가 터지거나 꺼지는 증상이 나타나며, 주황색 포자가 대량 증식되며 병원균은 빗물에 의해 빠르게 전파된다. 과수 탄저병은 약제살포 후에도 과수원을 정기적으로 예찰하고 병든 과실은 즉시 제거하며 통풍과 채광을 확보하는 등 예방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장귀균 소장은 "과수 탄저병은 한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되므로 사전방제와 면밀한 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남원 주생면지사협, 어르신께 파스 1천장 나눔

남원시 주생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이상봉)는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취약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파스 1,000장(약 300만원 상당)을 나눴다. 이번에 나눔 파스는 어르신들이 근육통이나 관절통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냉·온 찜질 효과가 있어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더위로 인해 신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어르신들의 통증 관리와 일상생활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부안 상서면 새마을부녀회, 이동세탁차량 '뽕송이' 봉사활동

부안군 상서면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9일 상서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이동세탁차량 '뽕송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정육기 부녀회장을 포함한 10여명의 부녀회원들이 참여하여 진행했다. 햇볕이 따가운 더운 날씨임에도, 부녀회원들은 지역 홀몸어르신들과 장애인에게 등을 위해 땀 흘리며 부지런히 빨랫감을 나르고, 세탁해서 각 가구에 전달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 조의금 일부 정읍장학재단에 기탁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19일,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이 부친상을 치르며 받은 조의금 중 3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지난 11일 별세한 부친의 뜻을 기리고, 조문객들의 따뜻한 마음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마련됐다. 김미경 센터장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위로의 정성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 아버지께서도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주시산업단지협의회, '함께장터'에 1천만원 전달

산업단지기업들함께뜻모아 부금 1000만 원을 전주시에 전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기부금 전달 후 환담을 통해 산업단지 기업의 공동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운영 회장은 "산업단지 기업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산업단지협의회는 2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주함께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사진=전주시>

남원시 드림스타트-백제약국, 취약계층 아동 영양제 지원 협약

영양제 구입 비용 후원 정한 유아 및 저체중 아동들에게 4개월분의 맞춤형 영양제를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원 백제약국' 유은상 대표 약사는 "성장기 아이들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협약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대한적십자사 평화동 봉사회, 어르신에 삼계탕 나눔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전주 완산구 평화동 봉사회가 19일 전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봉사원 20명이 참여해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해 관내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 400명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로 지친 어



한누리새마을금고, 완주시에 냉방물품 지원

제습기 등 500만원 상당 기탁 지원과 생활용품 지원 등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누리새마을금고(이사장 김종만)가 MG지역희망나눔재단의 지원 받아 완주군내 사회복지시설인 다예공동체에 선풍기 30대를 비롯해 여름이불 세트 35개, 제습기 1대 등 500만 원 상당의 냉방물품을 지원했다. MG지역희망나눔재단은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지원사업으로 냉난방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 취약계층가정 집수리 지원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 좋은 이웃들에서는 지난 19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번암면의 양○○(76세)를 비롯한 5인의 가정에 방충망 교체와 생활용품 등을 지원했으며 홀로 살고계시는 독거노인 천천면의 김○○(63세)는 가사 도구들의 낡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씽크대 교체, 도배 및 장판교체, 세탁기, 냉장고를 교체해 주었다. 이로써 총 여섯가정에 400여만원의 물품 및 생활용품 교체를 도와 줬다. /장수=최진수 기자



김제 백산면 복지기동대, 어르신가정에 전등 교체 봉사활동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고은용)가 지난 19일 에너지취약계층인 독거노인 16세대를 방문해 노후화된 전등을 고효율LED전등으로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원들은 독거노인들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현관과 화장실의 낡은 전등을 LED전등으로 신속하게 교체해 낙상의 위험을 줄였으며 고장 난 스위치와 오래된 전선등을 교체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힘을 보탰다. /김제=은봉기 기자

군산 현주순대국밥·삼대족발, 착한가게로 희망 더하다

군산시 미성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윤희·민간위원장 김용배, 이하 '협의체')는 새롭게 가입한 관내 2개 업소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착한가게'로 이웃사랑에 도착하는 '원조현주순대국밥(대표 박귀자)'과 '삼대족발(대표 정유리)'은 지역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맛집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무더운 여름 안전한 차량 관리법

자동차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 폭발성 물건 두지 않기



라이터



스프레이



손 소독제

폭염에도 안전할수있는 자동차 관리 방법!

01

냉각수

점검하기



02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기



03

배터리

점검하기



〈一事一言〉



중국은 친구인가, 경쟁자인가, 적인가?(2)

이문기
세종대 교수

최근 미-중 간 경쟁과 대결이 심화하면서 양측은 한국에 대해 상당한 선택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외교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미, 중 양국의 선택압력에 대해 한국이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우리의 국익을 온전히 지켜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슈의 성격에 따라서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나 독립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미-중 사이에서 순응적 타협의 교가 아닌 적극적 중재자 외교를 모색하는 것이 선택압력을 오히려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친 외교 행태와 기존 국제질서 규범의 파괴에 직면해서는 더욱 그렇다. 예컨대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쿼드+ 협의체'나 '칩4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경우 이를 끝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이슈와 연동시키면 한국의 선택지는 거의 없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을 향해 이들 기구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만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의 불만과 압박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덜 민감하면서 중재자로서의 실제적 역할이 가능한 이슈에서 시범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트럼프 취임 이후

크게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 국제 무역질서 규범, 기후변화 규범, 각종 다자기구 등 글로벌거버넌스 체계의 안정화, 그리고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인 AI 거버넌스 규범 등의 이슈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개입을 통해 중견국으로서의 글로벌 중재자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당장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도 이를 실현하는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교량국가로서 중재자 외교를 추진하는 데서 주목해야 할 외교무대가 글로벌사우스 진영 및 이들이 참여하는 국제 다자기구다. 최근 국제질서는 전통적 선진국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틈새를 글로벌사우스 진영이 빠르게 파고들면서 발언권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세계질서 속에서, 글로벌노스와 글로벌사우스 양 진영의 정체성을 모두 지닌 한국은 양측을 연결하는 교량자·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선진국으로의 전환을 동시에 이룬 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외교적 시야는 다소 협소했으며, 중간지대 국가로서 지닌 정체성과 역량을 대외전략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K-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잠재

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획이 되어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외교에 가장 많은 자원을 투입한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중국은 일대일로(BRI),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 글로벌문명이니셔티브(GCI) 등 다양한 구상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구축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수 개발도상국에서 중국에 대한 정치적 신뢰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역시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 및 전략적 협력에 있어 한·중이 보완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사실 미·중 간의 경쟁 구도와 글로벌 사우스-글로벌 노스 간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중국이 내심 기대하는 바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본격화해왔지만, 동시에 힘의 열세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며, 이른바 '회색시대 전술'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정면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양자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한다. 미국 및 글로벌 노스 진영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긴장을 완화

하는 데 있어, 때로는 제3국의 적절한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다. 중국이 볼 때 한국은 서방과 중국 양측의 입장에 상당히 정통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갖춘 매력적인 국가다.

K-이니셔티브를 외교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간지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정체성과 역량에 기반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외교 발상이 요구된다. 한중 간 갈등 이슈들은 겉으로는 양자 간 이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중 전략경쟁과 같은 다자적 갈등 구조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이는 한중관계의 미래를 양자 간에 단순한 교류 확대나 협력 강화만으로는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그리고 불확실성이 심화된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의 재편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교량자이자 중재자로서의 외교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한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한중 양국이 미래를 함께 설계해나가는 친구이자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남원시 독선 행정, 시민이 떠안은 400억대 청구서

남원시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전임 시장 때 추진된 남원관광단지 테마파크 사업을 현 시장이 중단시켰다가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부담을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처지에 몰린 것이다.

남원시는 항소심 패소 직후 대시민 사과문을 내고 재정 부담을 줄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이미 늦은 사과다. 근본적 원인은 시 행정의 선부분 판단과 독선적 결정에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짚외어 등 테마파크 시설을 광한루원 맞은편에 조성한 것으로, 남원시와 협약을 맺고 진행된 정당한 개발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최경식 시장이 취임 직후 감사를 지시하고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사업은 표류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그 결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원시에 40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배상액은 470여억 원에 달한다. 이는 사실상 남원시 민 모두가 떠안아야 할 청구서다.

남원시는 그간 "사업 협약에 문제가 많아 바로잡겠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정작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이 합리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 요인 검토, 법적 리스크 관리, 협약 조건의 정밀한 분석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소홀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행정의 독선과 무능이 결합하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원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사과에 그칠 것이 아니다. 우선 관련 책임자들에게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시민의 형세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배상 과정과 재정 대책을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 회복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급한 행정 판단이 결국 400억 원대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된 이번 사건은, 남원시민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다. 정책적 판단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무시한 채 독선적으로 추진하거나, 반대로 정당한 사업을 근거 없이 뒤엎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시민이 낸 세금은 행정의 실행 대상이 아니다. 남원시는 이번 사태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시민이 억울하게 피해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뒤늦은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다.

문화재 열전



남원 구 삼례 양곡창고 (전북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분류 - 산업시설
-지정일 - 2013년 12월 20일
-시대 - 1920년대
-소재지 - 남원군 삼례읍
후정리 247--1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간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원지국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8-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저녁 인사귀 / 한강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밤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찾아온 것은 아침이었다
한 백 년쯤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내 몸이
커다란 향아리같이 깊어졌는데
혀와 입술을 기억해 내고
나는 후회했다
알 것 같다
일어서면 다시 백 년쯤

별 속을 걸어야 한다
거기 저녁 인사귀
다른 빛으로 몸 뒤집는다 캄캄히
잠긴다

시인 약력 ; 1970년 광주광역시 출생.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시인으로, 1994년 소설가로 등단했다.

'한국소설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제29회 '이상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고 2016년 5월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다. '몽고반점',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다수 남겼고 그 영향으로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됐다. 노벨상으로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타임스신문은 독자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광고문의 282-9601
◇ 기사제보 282-9600
◇ 신문구독 283-8800

https://www.jeonbuktimes.co.kr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혁신 정읍시, 빛나는 '약자 동행'

정읍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노인·장애인지원 분야 예산을 1.5% 증액하며 총 2090억원의 재원을 투입, 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단순한 재정 확대를 넘어,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 동행 도시 정읍'을 향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시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양한 사회활동을 영위하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심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복지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부터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이동권 확대에 이르기까지, 정읍시가 펼치는 총 10종의 맞춤형 복지 정책은 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100세 어르신 축하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384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개선 사업도 추진된다. 추경예산 4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 2곳에는 신축을, 노후화가 심각한 203개소에는 개보수를, TV·냉장고 등 비품이 필요한 179개소에는 기능보강을 지원한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 17개소에도 4000만원을 지원해 환경을 개선하고, 14개소에는 자동혈압계를 보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윤달 기간(7월 25일~8월 22일)에는 개장 유급 화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남권추모공원의 1일 화장로 운영을 기존 8기에서 15기로 대폭 확대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특별 운영에 들어가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2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이 그 보증이다. 시는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 유형, 연령,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형 맞춤형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현재 6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 중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650여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론 교육을 넘어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 상생형 평생학습'은 참여자의 만족도는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은 하반기에도 학습자 작품 발표회, 동아리 교류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발'이 돼주는 이동권 보장 정책도 한층 강화됐다. 시는 2022년부터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휠체어) 이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손해를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사용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수리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출장 A/S'를 포함한 수리비 지원사업도 병행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물리적 장벽을 허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부터 30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상반기 12개소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지원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유모차 이용자 등 모든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밖에도 정기적인 혈액투석으로 병원 방문이 필수적인 중증 신장장애인 200여 명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의 복지 정책은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체감형 복지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100세 시대, 존경과 편의를 더하다 흡흡한 노인복지마을 구축

정읍시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존경받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올해 5월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어르신들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 1~3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 만족도를 키웠다.

이 사업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시행될 예정으로, '어르신이 으뜸인 도시'를 구현하려는 정읍시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어르신들의 주된 생활 공간인 이용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신태인, 이평 등 북부권역 5개 읍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북부노인복지관은 외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4000만원을 투입해 증축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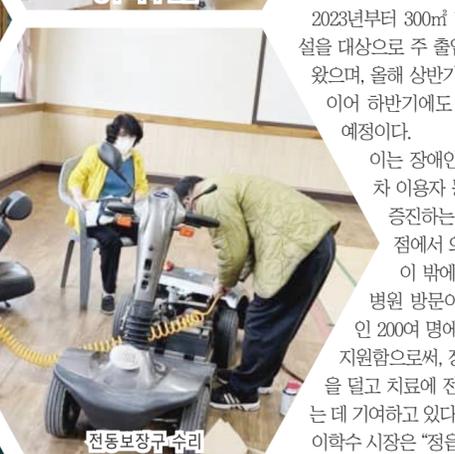
나이가 협소했던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등 총 1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268㎡ 규모의 증축 공사가 한창이다.

하루 500여 명의 어르신이 찾는 정읍시노인복지관 역시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연장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노후된 태양광 인버터와 지하수 살균장치를 교체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읍시립요양원은 국비 등 14억원을 투입한 증축사업을 통해 오는 10월, 전북 최초로 '가족 휴게실'을 갖춘 시설로 재탄생한다.

이는 입소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장벽 없는 도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장애인 평생학습·이동권 보장 박차

정읍시는 '장애인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목표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기반 구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